

보도 자료

내부제보실천운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T. 02)6941-0116

E-mail. gobal2017@naver.com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작 성 일 : 2021년 12월 28일 (화)

보 도 일 시 : **2021년 12월 29일 (수) 즉시**

문 서 번 호 : **20211228-1호**

사 무 처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문 의 :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처 (02-6941-0116)

제 목 : 내부제보실천운동, 제4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 보도요청 건

1. 건강한 사회문화와 언론직필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의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여명의 내부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들의 참여로 결성되었으며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제4회 「이문옥 밝은사회상」수상자가 선정되어 안내합니다. 자세한 수상 이유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옥 밝은사회상

나눔의 집 공익제보(위안부 피해 할머니 복지시설 비리부정 공익제보)

A씨(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정행위 고발자)

이승균(성남시 부패·비리 행위 고발자)

특별상

공공부분 사회진보상(정미현) : 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 부정행위 고발

사회복지부분 청렴상(김호세아) : 성공회유지재단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고발

언론부분 기관투명상(최현주) : 연합뉴스 국고지원금 부실사용 고발

제보자권익신장부분 모범공로상(김광호) : 현대차 엔진결함 고발

4. 시상식은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16시 우리함께빌딩 2층 기론에서 공익신고법 토론회(공익 제보자 죽이는 신고자 포상제도 개선 토론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관련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1]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 안내

내부제보실천운동

이문옥 밝은 사회상 심사위원회

제4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수상자 선정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7인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제보 A씨

성남시 비리 내부제보 이승균 전 비서관

1. 나눔의 집 공익제보(위안부 피해 할머니 복지시설 비리부정 고발)

우리가 기억해야할 역사. 후원금 부당사용, 지원금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횡령, 부당 처우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 나눔의 집의 비리부정을 고발하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1992년 설립되어, 현재 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 막대한 후원금이 모였으나,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함이 아닌 일반 요양원 설립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부당 사용과 각종 보조금의 허위 청구,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방만 사용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학예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 직원 7명의 용감한 공익 제보로 확인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근현대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다. 국민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약속한 나눔의 집에서 보조금 사기와 일부 횡령이 일어나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려 하였다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큰 상처이자, 전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공익제보 이후, 나눔의 집 기존 운영자들의 영향 하에 제보자들이 압박받고 감시당하며, 사건에 대한 해결이 아닌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칫 감춰질 수 있었던 문제가 내부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로 밝혀졌으며, 모진 압박과 여론호도 속에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가고 있는 제보자들의 노력과 공로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2. A씨(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제보자)

시민단체 내의 부정행위에 맞선 용감한 공익제보, 그리고 ‘너만 조용히 하면 돼’ 라는 제보자 재갈 물리기 시도에 굴하지 아니하고, 시민단체의 자정능력을 세우다.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나부터 정직하게, 다함께 투명사회’라는 구호를 내 걸고 지난 십 수 년 간 부패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공헌을 이어왔다.

그러나 A씨는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의 공공기관 용역 사업비 비위 행위, 법인카드 사적유용, 비용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를 포착하였고, 내부의 자정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공익제보 하였다. 하지만 제보가 지속적으로 묵살되었고, 심지어 ‘너만 조용히 하면 돼’라는 분위기 속에서 업무배제, 임금삭감, 인신공격, 제보자 신원유출 등의 위협적 현실을 경험했다.

공익제보활동과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단체에게 지워지는 윤리적, 법률적 책임과 의무는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내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자정능력은 시민단체가 가져야할 큰 덕목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다른 기관들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사례와 같이 제보자가 각종 형사조치로 위협받고, 개인에 대한 비방 등 메신저 공격을 받는 현실에도 사건의 축소, 은폐를 막고 시민단체의 자정능력을 세우려 노력했다.

시민단체의 건강함과 올바름을 위해 여러 어려움에도 사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가고 있는 제보자의 노력과 공로는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3. 이승균(성남시 비리 내부제보자)

지자체의 권력형 비리에 맞선 외로운 싸움. 인사채용에 대한 부정청탁과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부당거래, 그리고 이에 흔들리지 않았던 공익제보. 밝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으로 드디어 밝혀진 진실.

지자체의 권력형 비리는 그 특성상 공익제보 없이는 진실이 밝혀지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공직자로서 내부의 비리를 폭로한 다는 것은 자신의 직책과 인생을 거는 일이다. 그럼에도 제보자는 성남시의 어두운 비리를 용기 있게 제보하고, 권력의 탄압에도 끝까지 제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제보자는 성남시장 은수미의 선거캠프에서 활동 후,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 등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 직원으로 부정채용 된 사실을 알고 공익 제보하였다. 당시 선거 캠프 내 최측근 인사의 인사채용에 대한 부정청탁이 암암리에 이뤄졌고, 이에 제보자는 관련 사실을 은수미 시장에게 보고하여 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묵살되었고, 오히려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제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졌다.

또한 제보자의 흔들리지 않는 제보로 성남시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브로커를 통해 유착하여 수사기밀을 유출 받고, 거래를 통해 은수미 시장 사건을 축소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을 수사기밀 제공 경찰관 청탁으로 공무원 채용한 사실에 대해 뇌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로써 공익제보로 인해 은수미 성남시장 측근 공무원들과 선거캠프 비리관계자, 경찰관 등 십여 명이 구속되고 현재 50여명 정도가 기소대상이 되어 있다..

특히나 공직은 청렴과 투명성이 강조된다. 또한 잘못에 대한 성찰과 책임이 조속히 이뤄져야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자행한 비리에 대해 진실을 숨기고, 제보자 탄압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오고 있다. 제보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재까지 제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제보와 노력이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특별상

- **공공부분 사회진보상(정미현)** : 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 부정행위 고발

시민들의 혈세가 투여되는 공적 공간인 부천시박물관의 사유화와 방만한 운영을 고발하다. 제보 이후 가해지는 피제보자 측의 압박 속에서도 시민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고단한 노력을 격려한다.

- **사회복지부분 청렴상(김호세아)** : 성공회유지재단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고발

종교재단의 지역사회 복지활동의 민낯. 관행이라는 이유로 숨겨진 축적 수익금 전용의 현실을 고발하다. 제보 이후 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익제보자의 현실에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언론기관부분 기관투명상(최현주)** : 연합뉴스 국고지원금 부실사용 고발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유일하게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연합뉴스의 국고보조금 부실사용을 고발하다. 제보로 인해 사실로 확인된 문제에 대해 반성보다는 보복성 징계로 제보자를 탄압. 이에 맞선 멈추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격려한다.

- **제보자권익신장부분 모범공로상(김광호)** : 현대차 엔진결함 고발

현대차 엔진결함 사실을 한국 정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고발하다. 현대인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결함과 그 근본 원인을 고발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넘어 현대차 수입국의 국민들 안전까지도 보호 하며, 자동차 산업의 신뢰성 제고에도 역할을 하다. 제보활동의 환경이 척박한 한국에서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